

고교 학점제 앞둔 인천 학교 간 공동 교육과정 운영

시교육청 '로드 투 이코노믹스' 행사 개최

인천시교육청(인천시 교육감 권한 대행 부교육감 박용수)은 5월 27일 관내의 교육부 지정 교과중점학교 사회(경제) 학급 운영교 5개교(인천대건고등학교, 대인고등학교, 송도고등학교, 인하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 인천해송고등학교)가 연합한 진로 연계 체험활동 '로드 투 이코노믹스' 행사를 인천대건고등학교에서 개최하였다.

'로드 투 이코노믹스' 행사는 교과

중점학교 사회(경제)학급 학생들을 대상으로 '모의 주식 투자', '모의 자산관리', '4차 산업혁명', '기본소득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주제로 하여 강의와 체험, 토론을 하며 경제와 관련된 다양한 활동으로 진행되었다.

학교에서 깊이 있게 다루기 어려운 내용을 직접 탐구하며 여러 학교의 학생들이 함께 어울려 토론하며 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을 하면서 자신의

진로에 대한 탐색을 넓힐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특히 3D프린터를 통해 자신이 디자인한 모델을 직접 출력해 봄으로써 4차 산업혁명의 시대가 도래되었음을 몸으로 느낄 수 있었고, 모의 주식 투자와 모의 자산관리를 통해 경제학 지식도 심화해 볼 수 있었다.

또한, 기본소득제와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미래 사회에 닥칠 여러 사회 문제들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고민과 아이디어를 탐색해 보는 활동을 했다.

인천대건고등학교 정진성 교감은

"오늘의 이 행사가 학생들의 진로 선택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 기대하며 교과중점학교 간 협력적 교육 활동의 좋은 모델이 되어 지속적인 학교간 교육 협력이 이루어질 계기가 될 것이다"고 밝혔다.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혁신과 배재천 과장은 "앞으로 학교 간 공동 교육과정 운영 사례를 더욱 발전시켜 고교 학점제에 대비해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내년부터 온라인 기반 공동 교육과정도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행복동행의 시작은 호행'

상인천중, 2017학년도 제1차 인성교육 실천주간 운영

상인천중학교(교장 김홍근)의 1교 1인성교육 슬로건은 '행복 동행의 시작은 호행'이다. 이 슬로건에 맞게 오는 5월 22일부터 26일까지 '2017학년도 제1차 인성교육 실천 주간'으로 정하고 여러 가지 행사를 실시했다.

전 교사가 인성교육의 중요성을 알고 '아침 등굣길 바른 언어 사용 캠페인 활동, 교사가 먼저 스마일 하기, 발상머리 교육 협조 가정통신문 발송, 경로당 방문 효행 봉사활동, 효행상 시상' 등을 실시하며 학생들에게 배려와 나눔의 실천 주관이 되도록 노력했다.

특히, 5월 24일에는 교육복지사양으로 그동안 꾸준히 연합해 밴드 동아리와 난타 학생들이 간석3동 경로당을 방문해 공연하는 효행 봉사활동을 함으로써 동네 어른들을 기쁘게 했다.

이날 전담교 교감은 "우리 학교는? 학생들에게 어른을 공경하며 예의 바르게 행동하도록 '효' 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앞으로도 꾸준히 인성교육을 실시해 바른 인성을 함양한 상인천인이 되도록 지도하겠다"고 말했다.

인용성 기자 as@

'품위를 지키는 올바른 청년인'

청천중, 행복한 학교 문화 위한 '사제동행' 행사 진행

청천중학교(교장 한승욱)에서는 5월 20일 행복만 학교 만들기를 위한 '사제동행' 활동을 교직원과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성황리에 개최했다.

청천중은 올 한해 행복 나눔 학교로 선정돼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데, 그중에서도 '사제동행'은 많은 학생의 호응과 관심으로 매년 성황리에 이뤄지고 있다.

이번에는 건전한 토론문화 확산과 인문학적 소양 함양을 위해 주제 토론과 영화 관람 활동을 했다.

학교 안전 지킴이 학생들과 연하실 참여 학생들로 구성된 이번 사제동행 팀은 도서관에 모여 '품위를 지키는 올바른 청년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활발한 토론을 벌였고, 이를 조별로 정리해 발표와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학생들은 청천인의 품위를 위해, 약속과 신뢰, 바른 언어생활, 정결, 성실 등의 함목을 통해 학생으로서 지켜야 하는 본분에 알맞은 다양한 예들을 찾아내고, 이를 지키기 위해 규율이 아닌 자발적 깨달음이 중요하

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어 간단한 간식 시간을 갖고, 도로로 근처 영화관으로 이동하여 영미문학의 정점을 이루는 아더왕 신화를 다룬 영화 '킹 아서'를 관람하고 간단한 소감을 나누는 후 귀가했다.

안준호(학생회장, 3학년) 학생은 "친구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려 토론하는 과정을 통해 미처 몰랐던 친구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어 좋았고, 이러한 자연스러움이 모여 도달한 결론이 꼭 지켜질 수 있는 학교 문화를 만들 수 있도록 학생 스스로가 노력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인용성 기자 as@



"오늘은 경로당에 함박웃음 꽃이 피었네요"

상인천여중 '레인보우 문화체험반' 경로당 찾아 어르신과 시간 가저

상인천여자중학교(교장 김인숙) 레인보우 문화체험반 학생들은 5월 24일 동아리 시간을 활용해 극동아파트 경로당(남동구 구월로 소재)을 찾아 어르신들과 함께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상인천여중의 경로당 방문 행사는 핵가족 시대에 소홀하기 쉬운 세대간의 소통과 화합을 도모하고 우리나라의 미풍양속인 노인 공경 문화를 계승시키는 취지에서 해마다 이뤄지고 있는데 올해는 남동구청의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으로 더욱 풍요롭고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었다.

간석동 극동아파트 내에 위치한 경로당에는 20여 명의 어르신들이 평소 접하기 어려운 '나만의 도자기 만들기'와 '음식 나누기' 행사에 기대를 하고 일찍부터 학생들을 기다리고 계셨다.

1부 행사는 학생들과 어르신들이 함께 도예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2시간여에 걸쳐 나만의 도자기를 완성했다.

도자기를 만드는 어르신들의 상기된 표정은 마치 도공의 진지함 못지않았고, 서로의 작품을 보고 물레체험을 하며 친진난민하게 웃는 얼굴엔 소



년·소녀의 옛된 모습이 어른거렸다.

2부 행사는 준비해간 음식(떡, 수박, 바나나, 토마토, 파자파, 멜로 등)을 드시며 오늘 새롭게 경험한 도자기 만들기에 대해 이야기꽃을 피우셨다.

이모 회장이 대표로 "오늘 좋은 손

으로 만지고 화분을 만드니 느낌이 좋았어요. 떡도 맛있네요. 특히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찾아주시니 너무 고맙워요."라고 감사의 말을 전했다.

한편, 10월에는 오는 민들 도자기에 예쁜 꽃과 식물들을 심는 프로그램도 기획하고 있다.

인용성 기자 as@

독서 생활 습관화 통해 건전한 인성 만들어요

인천연수초, 독후활동대회

인천연수초등학교(교장 정영섭)는 5월 25일 전 학년을 대상으로 독후 활동대회를 실시했다.

독서 활동을 통해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과 사고력 및 창의력을 신장시키고 독서 생활의 습관화로 건전한 인성 함양과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며 학생 수준에 맞는 다양한 독서 행사 운영을 통해 독서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을 고조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우선 1-2학년은 독후화 그리기 대회로 그동안 읽은 책 중에 가장 인상 깊은 책 한 권씩 선택해서 인상 깊은 장면이 잘 드러나게 그림으로 표현하는 활동을 했고, 3-4학년은 독후감 쓰기 대회로 읽은 책 중에 가장 인상 깊은 책 한 권씩 선택해서 읽은 책에 대한 소감을 독후감으로 표현하는 활동을 했다.

인천연수초등학교 학생들은 독후



활동대회를 통해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과 사고력 및 창의력을 신장시키고 독서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을 고조시킬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인용성 기자 as@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지움'

지움 있다, 마음 있다, 밥을 있다...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의식문화
 대한민국 경제발전의 꼭 필요한 전성산업!
 건강상업은 국민경제의 국가발전의 이끄는
 우리 생활의 중심이 되어 오십시오.
 대한건설의 더 큰 미래를 믿고 있습니다

대한건설협회가 건설강국 KOREA를 짓습니다


대한건설협회